

사설

학생자치, 관심과 참여로 가능

선거의 계절이다. 양 캠퍼스 학생대표단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신문은 앞으로 1년 동안 학생사회를 대표할 후보자 보도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가 작년 이맘 때 학생들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살펴봤다.

서울캠 총학의 공약 이행률은 양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캠의 경우 다소 미흡했다. 학생들 간의 만남이 줄어들었고 학생회 예산을 구성하는 자치회비 납부율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니 총학이 공약을 실천하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음은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대표단이 학생 유권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총학이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큰 걱정을 자아내는 것은 학생

자치에 대한 무관심이다. 학생대표단이 학생들에게 내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는 커녕 공약이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재했다. 학생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학생대표단을 향한 학생회의 여론은 늘 '냄비'와 같았다. 학생회를 둘러싼 이슈가 발생하면 SNS를 중심으로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들불처럼 번졌다. 그러나 이는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금세 사그라들기 일쑤였다.

지난 4월 국제캠 총학에 대한 탄핵 논의가 오갈 때 학생들은 SNS를 매개로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비판을 보냈다. 하지만, 탄핵안 의결을 위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개최가 무산된 후 학생들의 관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들었다. 극소수의 학생만이

확운위 개최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뿐이었다.

관심의 '냄비'가 끓어오를 때조차 문제는 있었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사회의 관심과 비판은 SNS를 통해서만 표출될 뿐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적었다. 서울캠 총학이 '어떤 절차를 거쳐 총학생회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할 지'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SNS커뮤니티는 학생회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시글로 도배됐지만 실제로 공청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점이 우리 학생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정부를 비롯한 대표자가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견제라는 교훈을 얻었다. 건강한

학생대표단, 학생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역시 다를 바가 없다.

선거의 계절이 찾아왔다. 유세가 시작되면 SNS를 통해 또 다시 학생들의 '반짝' 관심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그리는 지금보다 더 이상적인 학생사회와 대학의 모습이 있다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짧은 시간 동안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학생 자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의 모습이 필요하다.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학생 유권자들이 학생 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과 실적에 대한 꾸준한 보고 등의 노력을 이행하는 학생대표단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야 할 것이다.

세시봉

대표자의 말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서 고인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육사 11기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현대문명을 경험하고 한국에 접목시킨 엘리트들”이라며 군부가 통치에 참여한 것은 그들의 숙명이었다는 추도사를 남겼다.

그의 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노 전 총리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미화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탄압한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노 전 총리의 말을 보며 대표자가 가진 말의 무게를 생각한다. 우리는 대표자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대표자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뜻이 아닌 그가 대표하는 수많은 이들의 뜻을 대변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노 전 총리는 한 때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고인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력을 고려하면 그의 말은 사견이 아닌 고인의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

노 전 총리의 발언은 무척이나 아쉽다. 신군부 세력에 의한 12·12사태, 5·18민주화운동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두고 한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정부의 대표자였던 그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듯 ‘숙명’이라는 표현을 꺼내든 것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고인은 생전에 아들 재현 씨를 통해 수차례 5·18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한 바 있다. 그의 유언 역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그가 고인의 뜻과는 거리가 먼 말을 남기며 고인이 남긴 마지막 진심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긴 것 역시 아쉽다.

노 전 총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노 대통령이 하는 말마다 평지풍파를 일으킨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역시 대표자의 말이 지닌 무게를 알고 있을 테다. 노 전 총리의 말을 노 전 총리께 돌려드린다. 5·18 희생자의 유족이 고인의 빈소를 찾으며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던 순간에, 많은 이들이 고인을 기리던 순간에 노 전 총리의 말은 어떤 평지풍파를 일으켰을까.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경희대학교 후원의 집

경희가 닿는 곳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경희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이 생각한다. 조금 더 떠올려보면 교직원을 비롯한 경희의 구성원들까지 경희라는 이름 안에 담긴다. 그런데 우리학교를 후원하는 가게들을 취재하면서 생각보다 경희라는 이름은 먼 곳까지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밥을 먹고, 남은 시간을 보내는 등 캠퍼스의 일상을 채우는 것은 결국 학교 주변의 가게들이기 때문이다.

정문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경희대로, 그리고 그 위의 수많은 가게와 사람들은 경희와 크고 작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나 단골손님으로 경희의 구성원과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회기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학생들의 작은 공연과 답사 등 경희의 문화를 꽃피우는 일에도

힘을 보태왔다.

그중에서도 ‘경희대학교 후원의 집’은 매달 경희의 구성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가게들이다. ‘뒤에서 돕는다’는 ‘후원’의 말 뜻 그대로, 대부분의 가게들은 우리학교를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기부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들에게 경희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친구였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후배였으며, 등하굣길을 함께 채우는 동행이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회기의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일상의 회복은 머지않아 보이지만, 회기동이 코로나 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 근처의 소상공인들이 학생들을 ‘친구’이자 ‘동행’으로 여기고 함께해 왔다면, 어려운 시기엔 경희도 그들과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경희의 추억과 흔적이 심어져 있는 회기동의 골목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온기어린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만평 경희와의 동행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태영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